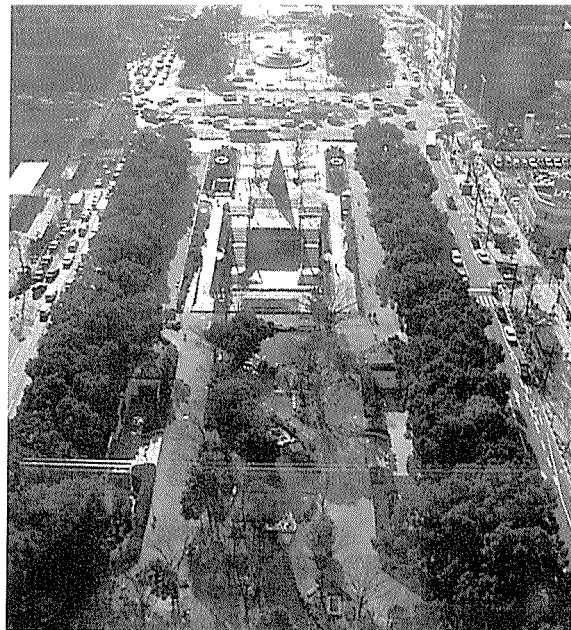


## 벽속에 갇혀진 유리집

Glass Office Surrounded by Defensible Walls

이정수/ 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by Lee Jeong-Soo



히사와오도리 공원

### 배경읽기

'나고야총영사관'. 이 단어로부터 머리를 스쳐 가는 생각은 '또 한국적인 형태표현에 대한 논의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먼저 건축물을 보기 전에 나고야총영사관의 건축과정에 대한 배경읽기를 시도하였다. 현상설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고민, 일본이라는 맥락에 대한 이해, 디자인을 발전시켜나가는 동안 현지 사정을 반영하여 풀어야 할 난제 등이 왠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았다.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는 '공관'이 설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고야총영사관은 외무부 해외 공관 국유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일련의 프로젝트중 하나로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후쿠오카에 이어 세 번째이다. 건축주에 해당하는 외무부로부터의 요구사항이 있을 법하다. 조달청에서 배부된 현상설계 지침을 살펴보았다. '현지 주위환경을 고려한 현대적인 Office 건물', 창의력이 발휘된 현대적이고 기능적이며 능률적인 건축물', 특히 외부디자인에 있어서는, '현대적,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든다. 기와 지붕이나 열주와 같은 한국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속박되어진 그 동안의 흐름에 비해서는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떠한 건축이어야 하는가? 자유로움은 더 많은 고민을 던져주게 마련이다. 일본 땅에 짓는 한국 건축가의 작업,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관공서 건축, 적지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 나고야라는 도시 읽기

나고야, 일본 중세역사의 3대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출생지가 가까이 있고, 나고야조(名古屋城)의 덴슈가쿠(天守閣)는 나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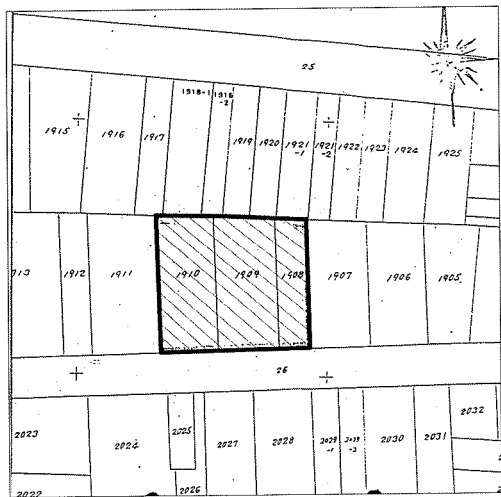
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다. 특히 나고야는 미쓰비시 중공업, 도요타 자동차와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우수한 공장이 위치한 일본 최대의 공업도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러한 군수공장으로 인하여 초토화되었으나, 그 땅위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후 도시를 이음답게 가꾸고자 하는 계획이 시작되었고, 도심 한 가운데 50m 폭 이상의 보행자를 위한 히사와오도리 공원(久屋大通公園)이 자리잡고 있다.

예전부터 만드는 것을 중시하여 장인정신에 빛나는 도시, 수전노 정신으로 관혼상제의 예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만의 독특한 검은 된장(핫초미소)을 지니고 있는 나고야는 보수적이고, 고집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 도시이다. 또한 공작기계와 자동차가 공업출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도시이면서도, 1989년 세계디자인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진 도시, 칸사이 공항에 대응하는 중부권 신공항에의 꿈, 그리고 2005년 나고야 만국만람회 개최를 기다리는 도시가 나고야다.

요즈음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특히 '나고야의 태양', '바람의 아들' 등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인들이 활약하는 유니치 드래곤즈의 구단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나고야에 한국의 건축가에 의해 건축된 '일본 속에 있는 한국 땅', 나고야총영사관이 있다.

도카이도 신칸센이 정차하는 나고야역으로 부터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나고야총영사관은 큰길가에서 약간 비껴난 이면도로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의 풍경은 아직 개발이 낙후되고, 주변이 그리 정리되어 있지 못한 음울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주변의 대지형상은 전형적인 일본의 '나가야(長屋)'라는 주거형식을 담을 수 있는 좁고 긴 필지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이면도로에 접해있는 이 대지는 나가야를 건축할 수 있어 보이는 규모의 필지가 합필되어 정방형에 가까운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곳에 하나의 그림이 필지 모르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주변환경과 대지의 형상

## 배경이기보다는 그림이기를 주장하는 건축

일본의 거리를 보면 건축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매우 독특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로풍경의 근원은 가로를 구성하는 건축물들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 통합체계내에서 서로가 타인의 작품을 위한 배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거리의 모습에서 나고야총영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주변이 아직은 그리 개발되지 못한 상태여서 변변한 건축물 하나 없다. 허름한 구옥들과 나대지, 그리고 노외주차장 등. 이 대지 역시 이전에는 여관이 있던 곳이라 했다. 대지 주변으로 정리되지 못한 잡연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은 건축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 같다.

밤이 되면 주변은 어떻게 변할까. 밤거리의 모습이 궁금하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밤의 길이가 길어 보인다. 따라서 많은 건축물들이 밤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경관조명이라는 어휘로 표현해내고 있다. 쇼윈도우 외부로 퍼져나오는 조명은 도시를 아름답게 하며,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어준다. 한국의 작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밤이 되면 이 거리는 인적이 뜸한 거리로 변한다. 방법서터가 내려진 나고야총영사관은 마치 굳게 닫힌 나고야성의 이미지만큼이나 철옹성이 된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공간으로서의 사무소 건축이라기보다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건축물로 변해버린다. 풍경화에서 그림처럼 오브제로서의 건축에 충실한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형태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방어적 형상의 덴슈가쿠

## 벽속에 갇혀진 유리집

우리는 가끔씩 TV를 통하여 일본 극우익단체의 테러위협에 시달리는 대사관을 바라볼 때가 있다. 그리고 그 한편에선 고유한 업무인 자국민의 보호와 비자신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행렬을 보게 된다. 즉 영사관은 보안상의 '안전'과 대민 업무에서의 '서비스'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속성을 담아내어야 하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특성은 형태적으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 재료에 의한 매스분절이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인이 느낄 수 있는 시각범위내에서는 확장감을 이용하여 방어적인 재료처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경으로서의 모습은 상부로 돌출된 유리 매스에 의해 현대적인 사무소 건축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나고야총영사관의 모습을 필자는 한마디로 '벽속에 갇혀진 유리집'으로 부르고 싶다.

중세 르네상스의 팔라쪼처럼, 아니 가까운 나고야쵸(名古屋城)의 덴슈가쿠(天守閣)의 계획 기법인지도 모른다. 외부인의 침입에 대해 방어적이어야 하는 건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저층부에 육중한 석재를 사용하며, 외부로 창을 잘 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거주자의 쾌적성은 내부를 향해 열려져 있는 중정이나 높이를 이용한 시각적 조망을 통하여 추구되어진다. 나고야총영사관은 이러한 기능적인 필요성에 대응하는 형태구성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의 수직적 분리이다. 저층부는 민원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지만 상층부는 제한된 영사나 공관원의 출입만이 허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은 수직적인 기능분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반사유리(Mirror Glass)라는 재료적 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저층부 개방공간은 스킵 플로어에 의해



요코하마 총영사관 전경



브릿지에서 내려다보이는 후정

시각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개 층이 오픈된 로비 공간은 다목적 홀과 문화홍보실 등의 대민 공간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요구에의 대응이다. 최근 외교부와 통상부가 통합되어 외교통상부라는 새로운 부처가 생겨났다. 이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제까지의 단순한 외교업무로부터 한 단계 뛰어넘어 교민단체의 중심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국 상사에게 무역이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사관이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형태적 이미지도 전시 및 행사를 위한 다목적 홀과 문화홍보,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로서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사관 건축이 자국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이미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무소 공간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고야총영사관의 형태적 특성은 형태적 표현에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적인 것에 대한 집착

아마도 작가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나 보다. 일본 땅에 건축된 한국 건축물, 건축법규 상으로도 일본 건축법의 적용에서 예외적인 '치외법권'의 땅이다. 그 땅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업무공간을 담는 과정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미련은 작은 후정을 낳고 있다. 전통적 기와지붕이나 열주에 의한 형태적 표현에 비해서는 공간적 해석에 의한 시도이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에 의해 즐길 수

있는 공중정원이 되기를 바란 것 같다. 2층 문화홍보실의 배경이 되는 후정, 사랑방의 낮은 턱 너머로 내려다보는 후정, 마치 반가의 사랑채를 담으려 한 것 같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간혀진 공간이 되어버렸다. 보안 시스템 때문에 접근이 차단된 2층의 깊은 공간, 허공을 날아다니는 브릿지와 보 아래 작은 탐이 하나 놓여있는 공간, 유색 하드너와 검은 콩자갈에 의한 재료적 이질감, 사괴석 담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배경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보와 벽체에 의한 솔리드한 이미지뿐이다.

또한 건축가가 고민하였던 한국적 공간에 대해서 현지에서 만난 사용자는 거의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업무공간으로 직접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바로 퇴근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국적 정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사관을 방문하는 외부인(한국인이거나 비자신청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대민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1층 또는 반2층의 공간에서 대기하는 동안 시각적으로 또는 직접 접근하기 쉬운 레벨에 위치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특히 공간적인 전개수법은 일본의 전통주거인 「나카야」의 깊은 곳에 그들만이 즐기 위해 만들어 둔 작은 후정처럼 매우 사적인 작은 정원으로 보여진다. 형태적 표현은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간적인 전개수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 문화적 충돌과 흡수

최근 한국문화시장에서는 상당한 긴장 속에 일본문화의 개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된 일본문화에 대해, 기성세대는 감정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상당히 억지개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일본

문화가 우리의 안방까지 침투해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지 만 일본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축분야에서도 건축을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안도 타다오의 작품 읽기를 즐겨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다. 또한 기성 건축가들도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우리 건축시장에 가장 가깝고 이해하기 쉬운 상대로 일본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고야총영사관은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일본 땅에 건축되어진 한국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IMF 이전 국내경기가 호황이었던 때 국내시장에 진출한 무수한 외국의 건축가들처럼 이제는 우리 건축가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주가 한국 정부라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 건축가의 작품이 일본 땅에서 실시설계로 풀어지고, 시공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충돌과 흡수의 메카니즘이 궁금해진다.

일본의 건축생산 시스템은 우리와 다른 것이 많다. 나고야총영사관은 한국에서 현상설계에 의해 계획안이 결정되긴 했지만 결국 일본에서 사용가능한 현지 기술과 노하우의 지원을 받아야만 실현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고야총영사관 건축설계 및 시공과정은 현지 법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총격흡수가 가능하였던 것 같다. 이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기제로 보여진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기능적 요구와 현지에서의 기술적 대응이 적절히 잘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나고야총영사관은 대부분의 일본 건축물 답지않게 상당히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스킵 플로어에 의한 주차공간 확보는 지하 구조물을 구축하는데 열악한 일본 특유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충돌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국적인 정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디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of Nagoya - What this title primarily implied to me was the age-old problem of defining the form of what is truly ours. Before the investigation on the actual work, let us begin with a look on the background of its realization.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value of this project, it seemed that the process of design competition, the debate on tradition and comprehending the context of Japan, and the modification of plans du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ite had to be considered.

Of course,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a diplomatic office, representing our nation, is built on foreign land. It is in fact the third built in Japan, following

테일로 느낌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일본의 기술자와 건축가의 사고 사이에는 분명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 주인없는 건축물

이 건축물은 주인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주인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내고, 작가의 사고를 표출해내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리라. 하지만 가끔씩 우리나라의 관공사는 현상설계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시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져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 나고야총영사관 역시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되고, 현지 공관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건축물이 시공될 즈음에는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접하게 되는 등 주인없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반복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주출입구의 로비부분에 보이는 반원형의 전실을 위한 공간, 행하니 남겨진 주진입구 상부의 벽체, 왠지 디자인적으로 통합되어 정리되지 못한 로비공간의 디테일 및 재료선정, '박제화된 박물관적 한국성'으로 남겨져 있는 후정 등 건축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작가에게는 미련이 많이 남을 부분인 것 같다. 나고야총영사관의 건축적 전개과정을 바라보면서 주인없는 건축을 작가의 일관된 사고아래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내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도 건축가의 머리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미련이 남게 마련이다. 이 프로젝트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경기인 국내 건축시장을 탈피하여 한국의 건축가가 세계로 나아가는 작은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Yokohama and Fukuoka, which is guided by our Government's project to nationalize our foreign offices. The clien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quested a "Modern-styled building adjusting to the site's condition," one that is "Creative, functional and efficient," and with the exterior that is built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at is at once contemporary and visionary."

The fact that they did not ask for a building with traditional form is worth mentioning: It is a breakoff from our past's oppressive obsession with historical style. But if not that, what? Freedom opens the door to a too broad possibilities, which means that so much is left for the architects to decide. The burden was

not a light one, since the work is to represent Korea and the architecture of our nation.

### Reading the City of Nagoya

Nagoya is the birth place of two of the three most important people of Japan's middle ages, and is now the largest industrial city of Japan. The architecture of this city, whose past is represented by Tenshugaku of Nagoyajo, was virtually destroy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later rebuilt, with the emphasis on good environment, exemplified by the presence of Hisawadori Park, with 50m wide pedestrian ways in the CBD.

With long tradition of craftsmanship and rituals, it is a city of conservative, sometimes obstinate, atmosphere. A city of heavy industry, the site of the successful International Design Exhibition of 1989 and awaiting the next one in 2005, the home of Junichi Dragons, the baseball team where three of Korea's most valuable players are currently active - This is Nagoya, and in it, is "Korea within Japan,"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The building, 5 minute's walk from the Nagoya Station, is located on the rear side of the main road. The neighboring condition is rather undeveloped, where each building area is fit for traditional Nagaya, houses with long and narrow plan. The site of the Consulate General, however, adds three of these lands and thus provides an area of regular square. Here, a building is present: one that could be an object of a painting.

### Architecture More of an Object than Background

The streets of Japan is usually a combination of individual buildings that results in idiosyncratic characteristics. There is an unmentioned integrating system among them, where one acts as a background for the next one.

In this respect, what could be the role of the Consulate General in this context? As most of the area remains untouched, old houses scattered here and there with some outdoor parking spaces in-between, there is not much you can call a context. These undesirable conditions, however, may provide this new addition to act as a catalyst for renewal.

As the night in Japan is longer than that of Korea, it is one of the primary concerns of Japanese architecture to design their appearances after dark. Artificial lights coming out of show windows decorate the night streets, which welcomes the nighttime walkers. How should a Korean architect deal with such aspects?

The street of this area, however, becomes abandoned after dusk. The steel shutter of Consulate

General's main gate seems to be as exclusive as the Castle of Nagoya. More of an object than a place of easy access, the architecture becomes an element from a landscape painting. This image also revealed in the process of its formal design.

### Glass Office Surrounded by Defensible Walls

We have seen on TV the image of an endangered Embassy building, under the attack of extreme-rightist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we have seen people waiting in long lines to receive visas. The mission of a diplomatic office is double-faced: One seeks protection for security reasons, while the other aims for service. These contrasting features are directly displayed in the formal organization of this building.

First, the volumes are divided by the use of materials. From the narrow approaching road, the areas of visual contact from the passing pedestrians is finished with granite that provides a sense of security. In contrast, the view from a distance is that of a modern office building, dominated by the projecting glass volumes. I wish to describe this image of the Consulate as a "glass office surrounded by defensive walls." This method could have been derived from the Renaissance Palazzos, or, to take a more close example, Tenshugaku of Nagoyajo. A building with defensive needs is usually of heavy texture on the lower parts, deprived of windows. The exclusiveness is compensated by the openness towards the inner court, or, making use of its height, areas of good vistas, methods that are formally borrowed in the Consulate.

Second, the organization of programs follows a vertical order. While the lower area is open for general services, the upper levels are highly restricted, accessible only to staffs, whose closure is all the more strengthened by the use of one-way mirror glasses. The lower floors, with its skipped-floor composition, has visual connection among space units, and the double-height lobby unites the multipurpose hall and the culture information sector.

Third, I must point out its answers to new requests. As the government incorporat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into the Ministry of Foreign Commerce, the Embassies and Consulates also had to expand their functions: Now they had to deal with, apart from the normal diplomatic affairs, commercial activities, providing Korean companies with recent informations on foreign trades. They were endowed with the new mission to find larger foreign markets, and to fulfill these assignments, they should embody the function of a business center. Its overall image should also become that of a multipurpose hall, open for exhibition and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business events. This is where it should depart from its

old insistence on traditional forms, and seek a image with broader capacities. Its programmatic purpose as an office already inherits this possibility. The Consulate General of Nagoya successfully emits this new odor of farseeing functions.

### Obsession with Tradition

Nevertheless, touches to create "What is Korean" remains visible in many instances. Korean Consulate in Japan is virtually a work of Korean architecture, even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Japanese building codes. In creating a working space for the Koreans, the architect has made room for a little court in the rear side. This sort of spatial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traditional buildings is without doubt a meaningful departure from the past's formal imitations. It is directly accessible from the outdoors, and acts as an open roof garden, becoming the background of the culture information sector of the second floor. It is a reminder of the view of a rear garden from the Sarang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seen over the lifted threshold of its entrance.

In actual use, however, it became even more difficult for its users' access and became a closed space. For security reasons, the space became restricted, with only objects of bridges, small towers, and floors of hardener and black gravel filling its vacant spaces. What becomes its framed view is not the sky but a hard image of girders and walls.

The concern for Korean images was also almost detached from its actual users. The staffs of the Consulate, in the morning, comes directly into the office and later leaves the same way. Who does the Korean garden serve? It certainly isn't for the visitors, since, in that case, it should have been located visible to the diplomatic service areas of the first and second floors.

The design of spatial advancement is rather similar to that of the Japanese Nagaya, where the court is reserved only for private purposes. The expressed image of the building seeks something Korean, but its spatial plot is more Japanese than ours.

### Clash and Absorption Between Cultures

Facing the gradual import of Japanese Cultures, the culture market of Korea is currently in a very cautious mode. It is already popular among the young generations, but the old folks are, for emotional reasons, against this cultural invasion. Although it is now a significant part of our everyday lives, the influence of Japanese is something we would rather not talk abou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students has long respected the works of Japanese architects such as Tadao Ando, and travel to Japan to visit and inspect their

works. Practicing architects also cannot deny the intimate presence of Japanese architecture.

In contrast, the Consulate General of Nagoya is an architecture built by us in their land. As many foreign based architects got the chance to work in Korea before the IMF-aid, it is now our turn to march into overseas markets. Although it is a special case where the client is the Korean government, one still wonders, in the course of its design and construction, about the clash and following absorption between the cultures of two countries.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 architectural construction system of Korea and Japan. The design competition for the Consulate was held in Korea but the actual construction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and know-how of the Japanese. This architecture, not only in terms of technology, but in respect of culture also, was an amalgam of Korea and Japan, fulfilling the former's functional requests by the latter's technologies. For instance, this building, unlike those of Japan, houses parking space of large capacity. But its structural support is done by skipped-floor reflecting Japan's special concern for underground structures due to frequent earthquakes. A more subtle example of conflict could be found in the technical details in realizing the Korean courtyard. Inconsistency between the Korean architect and the Japanese engineer is sure to have occurred.

### Work of Architecture Without a Client

Looking at this building, one gets the strange thought that it is an architecture without a client. Maybe it's the opposite: It may have too many. The role of the architect is to accept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client and integrate them with his own ideas of architecture. But the public offices of Korea, even in cases where it was built through the proper procedures, tend to end up with a rather unfriendly gesture. The construction of this Consulate also followed a similar path: Initiated by the Office of Supply, receiving requests from the staffs in Japan, and later having to adjust to more requests, it was a process concerning too many clients, or none at all.

The semicircular space for exhibitions in the main lobby, the vacant wall above the main entrance, the segregated choice of materials in these spaces, and the "Korean court" in the rear side should be parts of the project that the architect would wish he'd done better.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preserve his own vision in this "no man's" project.

Every completion of an architectural work leaves the architect with dreams and ideals unfulfilled. Through the valuable experience of this project, the architect should aspire to advance into the world of architecture of the world.